

석지 채용신의 <주자(朱子) 초상>: 유학 존승을 위한 유림(儒林)과 화가의 합작

민길홍*

- I. 머리말
- II. 1909년 정읍 영양사 건립과 <주자 초상> 봉안
- III. 1914년 진주 도통사 건립과 <주자 초상> 봉안
- IV. 초상화를 통한 유학 존승과 채용신의 수응(酬應)
- V. 맺음말

I. 머리말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1906년 정산군수에서 물러나 전라북도 지역으로 내려온 후 지역 사회의 수요에 응하며 많은 그림을 그려주었다. 1910년대에 채용신은 그림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주문에 응하며 지역 인물들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요청하는 다양한 그림을 그려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 정읍의 김직술(金直述, 1850~1920) 집에 머물면서 도강김씨 인물들의 초상화와 선조들의 행적이 담긴 <칠광도(七狂圖)>와 <송정십현도(松亭十賢圖)>를 그렸으며, 1912년에는 <안재호(安在濩) 초상>, 1916년에는 진안을 방문하고 <이덕응(李德應) 초상>을 그렸다고 한다.¹ 그런데 그 무렵 채용신은 지역 인사들의 초상뿐 아니라 여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 <안재호 초상>에 대해서는 『석지 채용신 초상화』(국립전주박물관, 2020), 도판해설, p. 139; <이덕응 초상>에 대해서는 김호석, 「수당 이덕응 초상화에 대한 연구」, 『화양산 황단 100주년 기념 특별전』 조선의 광복과 국민단위의 염원, 화양산

점의 성현 초상을 그렸다. 현재 사진으로만 전하는 전북 정읍 영양사(瀛陽祠) 봉안 열 두 성현 초상, 경남 진주 도통사(道統祠) 봉안 주자, 공자 초상,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주자 초상, 미술관 솔 소장 주자 초상, 호림박물관 소장 공자 초상 등이 알려져 있다.

성현으로 오랫동안 존송되었던 남송의 유학자 회암(晦庵) 주희(朱熹, 1130~1200)는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한 인물로 ‘주자’로 존칭되었던 인물이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철학으로 중요시하였고 특히 16세기 들어 사림 세력이 부상하면서 주자의 행적과 학문을 기리는 작업들이 활성화되었다.² 이에 따라 그의 초상이 제작되어 전국 각지의 서원에 모셔졌고, 그의 은거지인 무이산(武夷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주자는 일생의 대부분을 무이산 인근에서 살았다. 54세가 되던 1183년부터는 무이산에 정사(精舍)를 짓고 은거하면서 제자들에게 강론하는 일과 저술 작업에 전념하였다. 주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무이구곡(武夷九曲)은 주희의 학통(學統)을 이은 후학들의 활동 공간이 되었다. 주자의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은거하며 강론과 저술에 전념하였던 삶의 자취를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커짐에 따라 <무이구곡도>가 그려져 유행하게 되었다.

주자 송모열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주자 초상, 20세기 전반에 채용신이 그린 무이구곡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진 바 있다.³ 본고는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역과 시대를 한정하여 채용신이 여러 점의 성현 초상, 특히 주자 초상을 그린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은 이후 정읍, 담양, 진주 등지에서 공자, 주자 초상 제작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그러한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채용신에 주목하였다. 어진을 그렸던 화가로 명성이 있었던 채용신에게 주자 초상을 주문하게 된 것은 당연하나, 화가가 금전적 댓가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활동으로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던 이면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학의 본질을 깊이 추구하는 유림들과

황단』(진안역사박물관, 2019), pp. 138-149.

2 16세기 중반까지는 중국 원나라에서 『성리대전』을 들여와 송나라 오현(五賢)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주자의 학문은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는데, 1543년(중종38년) 『朱子大全』이 국내에서 간행되면서 비로소 주자의 모든 저술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신두환, 「16世紀 朝鮮의 『朱子大全』 刊行과 그 學問的 動向 研究」, 『南冥學研究』 52 (2016), pp. 43-78.

3 주자 초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서홍석, 「충현서원 소장 주자초상 고찰-초상의 제작연대 및 이동상황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2014), pp. 249-272; 박정애, 「조선시대 朱子 崇慕熱과 그 이미지의 시각화 양상」, 『대동문화연구』 93 (2016), pp. 199-241; 문미진, 「韓國의 朱熹 肖像 研究」, 『中國人文科學』 63 (2016), pp. 205-234 등이 있다. 채용신의 주자 초상에 대해서는 양진희, 「석지 채용신 회화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채용신 무이구곡도에 대해서는 정경숙, 「석지 채용신의 1915년 작 <무이구곡도> 10폭 병풍에 관한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 5 (2016), pp. 183-210; 채용신의 공자 초상에 대해서는 조정욱, 「경상대도서관 소장 채용신의 <至聖先師孔子像> 연구」, 『남명학연구』 66 (2020)가 있다.

뜻을 같이 하고자 했던 심적 동인이 있었다고 본다. 채용신에 대해서는 항일 우국지사 초상을 그렸다는 이유로 항일의식을 가진 화가로 일찌감치 주목되어 왔지만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좀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신분은 높지 않으나 충, 효 등으로 덕망이 있었던 지역 인사들 초상을 그릴 때 채용신이 그들을 존중하며 남긴 기록이 있고, 주자 초상을 그린 것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채용신의 주자 초상 제작은 화가가 초상화 주문에 따른 선택과 수락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사례로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II. 1909년 정읍 영양사 건립과 〈주자 초상〉 봉안

1903년 정읍 지역의 명망있는 유학자蒼巖(蒼巖) 박만환(朴晩煥, 1849~1926)은 1만 여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영주정사(瀛洲精舍)를 지었다. 당시는 서원 훼손령의 강제력이 약화되면서 원사 복원 및 신규 건립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영양사가 탄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박만환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1886년 통훈대부 행 의금부도사, 1890년 삼례 찰방을 지냈고, 영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전라북도 정읍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기울어진 나라를 구하는 길은 교육에 힘써 후학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믿었다. 박만환은 전우(田愚, 1841~1922)와 함께 임헌회(任憲晦, 1811~1876)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였고, 3천석 부자였다고 하며 1년에 300석 씩 출연하여 영주정사 모든 학생의 숙식을 책임졌다. 당시 영주정사에 들어가 공부하려는 자가 대기 순번을 기다리며 줄지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⁴ 그후 6년 뒤인 1909년 중국의 기자(箕子)와 5성(聖) 6현(賢)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추가로 3칸 크기의 영양사를 지었다.⁵ 서편 1칸에는 기자 영정을 봉안하고 동편 2칸에는 공자(孔子)와 4성(四聖)인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그리고 6현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소옹(邵雍, 1011~1077), 장재(張載, 1020~1077), 정호(程顥, 1032~1085), 정이(程頤, 1033~1107)와 주희(朱熹, 1130~1200) 초상을 봉안하였다. 영양사

⁴ 양훈도,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천석꾼 아버지와 아들-정읍 영주정사와 영양사,” 지역N문화 역사문화유산, 2024년 11월 20일 검색, <https://www.nculture.org> 참고.

⁵ 영주정사에 대해서는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참고.

에서 강학 활동을 했던 전우는 1914년 「영양사기」를 지어 영양사가 처음 건립되었던 당시 상황을 기록하여 남겼다.

나는 일찍이 고궁(향교) 유생들이 삭망(朔望)으로 향을 올리고 춘추로 석채(釋菜)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할길 “이것은 스승과 성현을 존중하는 예이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성현이 밝힌 법도를 강명(講明)함을 알지 못하다라도 그 몸을 마치도록 감히 성현의 밝아온 법도를 어김이 없는 것이 곧 진정으로 스승과 성현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금은 오랑개가 중원을 어지럽히고 사설(邪說)이 하늘까지 넘쳐나며, 경내의 교공은 부서짐이 이미 심하여 다시는 유생들이 귀의할 곳이 없게 되었다. 박만 환공이 개연히 탄식을 하고, 강사(講舍) 뒤에다가 사당 3칸을 세웠다. 서쪽 1칸은 기자를 봉안하였으며, 그 동쪽 2칸에는 가운데에 공자를 봉안하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사성을 배향하면서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주희 등 육현을 차례로 봉안했는데, 모두 화상으로 한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이름을 “영양사”라고 부르니, 이는 진실로 오늘날에 미땅히 해야 할 바이다. (중략) 무릇 유생들이 이 사당에서 참배하는 것은 모두 구(矩)에 뜻을 두고 구에 서는 것이다. 거친 것을 통하여 정밀한 곳으로 들어가고, 소년에서부터 늙은이까지 혹은 심과 리가 하나가 되어 범(凡)과 성(聖)이 나란해짐에 이르게 된다면, 다른 때에 창차 대도(大道)가 행해지고 대경(大經)이 바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천하의 국가가 다스려지고 평안해짐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오호라, 이 사당을 어찌 과소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혹여 영상(影像)을 침앙하고 회모하는 데만 그칠 따름이라면, 지난날의 향교 유생들이 한갓 문구만 행하고 실제적인 학문에 보탬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기문으로 삼는다.

갑인년(1914), 5월 후학 담양인 전우가 적음.⁶

기문을 통해 1909년 영양사가 지어질 때부터 성현 초상들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실제로 전우는 1910년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공자와 주자 두 초상에 기대 그들의 유서(儒書)를

6 전우는 기문에서 박만환이 영양사를 짓게 된 경위와 목적을 기술하고, 비록 이 사당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주권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田愚, 「藏陽洞記」, “... 今值裔戎亂華, 邪說滔天, 域中校宮弗廢已甚, 無復可爲章甫之歸者. 凝川朴公晚煥, 慨然發歎, 就講舍之後, 立祠三間, 而西一間, 奉箕子, 其東二間, 奉孔子於中, 以顏曾思孟四聖配, 周程張邵朱六賢, 以次而從之, 皆畫像也. 既而名之曰瀛陽祠, 此誠今日之所宜爲也, 蓋自天下而視之祠不遇太倉之一稊粒, 然以實理足以觀之, 此雖小祠, 亦足以基異日陽復之漸也...”. 원문 및 번역문은 권수용, 「〈부록〉영주정사 현판 번역」,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pp. 240-242에서 재인용.

끝어안고 수사선도(守死善道)할 결심을 하기도 하였다.⁷ 시대의 상황에 대응하여 유학의 도통적 연원이 되는 중국 성현을 환기하고 초상화가 봉안된 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스스로 강해지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우의 유학 중시는 당시 많은 유럽들에게 지침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들의 초상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런데 사진으로만 전하는 영양사 봉안 열두 성현 초상이 전하고 있고 채용신 화풍을 보인다. 1909년 제작한 채용신의 성현 초상은 모두 12점이다(Fig. 1). 현재는 흑백사진으로만 전하고 있어 정확한 표현과 크기를 알 수 없다.⁸ 화면에서 차지하는 인물의 비율이 모두 제각각이고 배경도 다르다. 바다에 표피를 깔고 앉아있는 공자와 주자, 맹자 초상이 1유형, 입상으로 그려진 기자 초상이 2유형, 나머지 초상을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Fig. 1. 채용신, <주자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Chucha, 1909, Color on Silk, Chŏngŭp Yŏngyangsa (Jeonju National Museum, *Sŏkchi Ch'ae Yongsin: put ūro saram ūl mannada*, p. 70)

Fig. 2. 채용신, <박만환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Pak Manhwan, 1910, Color on Silk, 142.5×73.2cm,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Museum of History)

7 田愚, 『長齋先生文集前編』, 卷之十六, 「告孔朱二夫子象文」; 김혜미, 「조선시대 야복(野服) 초상화의 성립과 전승-송시열의 심의(深衣) 초상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p. 157.

8 『석지 채용신-붓으로 사람을 그리다』 (국립전주박물관, 2011), pp. 70-71.

열두 성현 초상은 영양사 3칸 건물에 모두 봉안되었다고 한다. 1칸에 기자가, 나머지 2칸에 나머지가 봉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공자와 주자, 맹자를 제외하고 상단에 여백이 많다는 일관적 특징을 보인다. 왼쪽으로 얼굴을 돌린 우안7분면은 중국 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영양사 봉안 주자 초상은 심의를 입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모습이며 바닥에는 표피가 넓게 깔려 있다. 이 표피방석은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대성지성공부자진상>에서도 확인된다. 표피방석은 ‘고비(阜比)’라고 하는데 스승이 학문을 강론할 때 깔고 앉는 자리, 즉 스승의 자리라는 의미로 사석(師席)을 일컫는다. 송(宋)의 장재(張載, 1020~1077)가 호피, 표피를 깔고 앉아 『주역』을 강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⁹

안면 오른쪽 뺨에 일곱 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 주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박만환 초상> (Fig. 2)과 비교해 보면, 얼굴에 명암법과 무수한 붓질이 적극적으로 구사된 점, 콧날의 표현을 위해 콧등에 세로로 하이라이트를 주고 양쪽으로 어둡게 처리한 점, 귀의 전체적인 모양 등 얼굴의 묘사 방법이 동일하며, 심의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생기는 옷주름 패턴이 채용신 화풍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Fig. 1-1, 2-1).



Fig. 1-1. 채용신, <주자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Chucha, 1909, Color on Silk, Chŏngŭp Yŏngyangsa (Jeonju National Museum, *Sŏkchi Ch'ae Yongsin: put ũro saram ŭl mannada*, p. 70)
 Fig. 2-1. 채용신, <박만환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Pak Manhwan, 1910, Color on Silk, 142.5×73.2cm,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Museum of History)

⁹ 조정육, 앞의 논문, p. 100.

거의 동시기인 1910년에 채용신은 영양사를 세운 박만환 초상을 그린 바 있어, 열두 성현 초상은 채용신이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박만환 초상>(Fig. 2)은 화면 오른쪽에 ‘찰방박만환 육십이세상(察訪朴晩煥六十二歲像)’이라는 목서가 있어 한학자 이자찰방(察訪)을 지낸 62세의 박만환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족자 뒷면에는 ‘경술사월상한(庚戌四月上澣) 종이품 전군수 채석지사(從二品前郡守蔡石芝寫)’라고 하여 1910년 4월 채용신이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1910년경 정읍의 도강김씨 문중에서 채용신을 초청하여 문중 인물들의 초상과 <칠광도>를 제작하게 한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¹⁰ 아마도 이때 정읍에 머물면서 박만환 초상도 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채용신의 정읍과의 인연은 오래되었다. 확실한 정읍 인물 초상 기년작으로는 1910년 박만환, 1911년 김기술(金箕述, 1849~1929), 1912년 안재호(安在護, 1821~1873) 초상 등이 확인된다.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이 화면에 글을 남겨 1910년이 하한연대가 되는 <영모도>를 전북 김제 송기면(宋基晷, 1882~1956)의 집에서 그리는 등¹¹ 1910년 전후로 채용신이 이미 전북 지역에서 지역의 수요에 응해 많은 그림을 그려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1909년 정읍에 성현 초상의 제작이 필요할 때 채용신에게 의뢰한 것은 당연하다. 그 후 1914년 봄 채용신은 공자 초상을 모사하기 위해 영주 백천재(百千齋)를 재방문하기도 하였다.¹²

영주정사를 짓고 6년 뒤 다시 영양사를 지었던 것은 20세기 전반 혼란스러운 나라를 걱정하며 유교의 가르침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반영이다. 존망의 시기에 소중화를 표방하면서 유도(儒道)를 사수하고자 했던 유럽의 마음은 정읍의 유럽들과 전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 관련 기록인 『존화계첩(尊華契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³ ‘존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모임은 1917년에 만들어졌다. 박만환, 권순명(權純命), 박수(朴錫), 김직술(金直述, 1850~1920) 등 전우의 동료와 제자들 267명의 명단이 『존화계첩』에 실려 있고 계첩에는

10 채용신의 정읍에서의 활동은 유미나, 「20세기 초의 정읍과 채용신의 회화 활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8 (2024), pp. 345-379; <칠광도>에 대해서는 민길홍, 「송정과 칠광의 소환, 1910년 채용신의 <칠광도(七狂圖)>: 이미지를 통해 전하는 도강 김씨 문중의 메시지」, 『미술사학연구』 322 (2024), pp. 33-57.

11 『국립전주박물관 학술총서』 석지 채용신 화조·산수화』(국립전주박물관, 2023), p. 202, 도판해설 참고.

12 『석강실기(石江實記)』의 서문을 쓴 박수(朴錫)는 1914년에 채용신이 공자 초상을 이모하러 영주(지금의 정읍) 백천재를 방문했을 때 만났다고 서술하였다. 「석강실기서(石江實記跋)」; 이두희·이충구 역, 『석지 채용신 실기』(국학자료원, 2004), pp. 21-24.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이 작성한 『百千齋記』는 그의 문집인 『心石齋集』에 남아있고, 현재 영주 정사에도 편액으로 기록되어 남아있다. 『백천재기』에 따르면 백천재는 박만환의 집이었다고 한다.

13 『존화계첩』은 증손 박철 소장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영, 「근대이행기 호남인제의 산실, 영주정사와 영학숙」, 『정읍역사 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p. 16.

20여 문중에서 출연한 내역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우는 영주정사에서 정읍, 고부, 고창, 김제, 부안 등지의 유생들을 사사하면서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을 받았고, 『존화계첩』이라는 명부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사회를 지배했다.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상황에서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 중 하나로, 각종 유가서(儒家書)를 출간하였던 상황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전우가 스승인 임헌회의 명을 받아 신기선(申箕善, 1851~1909)과 함께 편찬한 책 『오현수언(五賢粹言)』은 조선 유학의 맥이라 할 수 있는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송시열의 글 중에서 유학의 도통과 정주학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구성한 것이다.¹⁴ 이 책은 1905년에 간행되었는데 출간 자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박만환이었다.¹⁵ 이렇게 당시 지역에서 구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영주정사와 영양사, 그리고 전우와 박만환이었다. 전우가 1906년 영양사 백천재에서 자신의 문고 36책을 산정(刪定)했던 것에서도 영양사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는지 알 수 있다. 영양사에 주자 등의 성현 초상을 봉안함으로써 조석으로 참배하며 유림들의 신심을 집결하게 하는 시각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도모했을 것이다.

III. 1914년 진주 도통사 건립과 <주자 초상> 봉안

1909년 정읍 영양사를 시작으로, 채용신은 1914년 진주 도통사에도 방문하여 주자, 공자 초상을 그렸다. 『석강실기』에는 채용신이 진주에서 성현의 초상 제작의 요청이 있어 멀리까지 방문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1909년 순흥안씨(順興安氏)의 문중 재실인 연산재(硯山齋)에서 안향(安珦)의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를 중간(重刊)하고, 1913년 이상규(李祥奎, 1847~1923)가 연산재 뒤편에 3칸의 영정각(影幀閣)을 건립하였다. 안향이 만년에 공자와 주자를 모시던 고사를 추념(追念)하여 영정각 중앙에 공자를 봉안하고, 동벽(東壁)에 주자를, 서벽(西壁)에 안자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도통사(道統祠)’라 명명하였다.¹⁶ ‘도통’이란

14 박학래, 「근대 이행기 간재학과의 형성과 전개」,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흐름, 2016), p. 61.
 15 『오현수언(五賢粹言)』(1905); 정원기, 「한말-일제강점기 영주정사 추신 인물들의 활동」,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p. 179.
 16 이정희, 「일제시기 경남지역의 공교운동(孔敎運動) 연구-도통사 공교지회(孔敎支會)와 배산서당 조선공교회(朝鮮孔

도학의 전수에 중심이 되는 계통이라는 뜻이다. 그 무렵 도통을 중시하는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일어났던 공교(孔敎) 운동이 공자를 교주로 한 유교를 종교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상규, 이도묵(李道默), 조호래(趙鎬來), 정규석(鄭圭錫), 안효진(安孝鎭) 등이 주축이 되고 단성, 진주, 함안 등에 거주하는 유가 지식인이 참여하였다. 도통사가 세워지고 1914년 공자, 주자 안향 초상을 봉안했는데, 채용신이 멀리서 와서 초상 모사 작업에 애써준 것에 감사하며 이도묵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공자, 주자, 안향 세 성현에게 한 방에서 석채례(釋菜禮)를 행하는 것은 우리 동방 유림의 공공의 여론이다. 작년(1913) 9월에 회헌 안선생 화상이 경기에서 왔고 묘각(墓閣)이 이루어졌으나, 공자, 주자 두 분의 화상은 아직 그려 걸지 못하였다. 채용신은 사문(斯文)의 달존(達尊)으로서, 특히 그림에 뛰어나 호칭하기를 당세 오도자(吳道子)라고 하였는데, 금마군에 살았다. 이 해 팔월에 사백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가뵈러 연산(硯山)에 왕림하시어 묘각이 아직 틈내어 이루지 못한 것을 살폈다. 이윽고 또 공자, 주자 두 분의 화상을 그리고, 회헌 선생의 과거 화상을 보수하니, 모두 요묘하고 정밀하여 명실이 상부하였다. (중략)

갑인년(1914) 중양절(重陽節, 9월 9일) 6일 전에 남천생(南川生) 이도묵은 서문을 쓴다.¹⁷

『도통사지(道統祠誌)』(1964)에도 채용신이 공자, 주자 초상을 그리게 된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실려 있다.

… 1912년에 이상복(李相福)과 안낙진(安洛鎭)을 보내어 장단(長湍[경기도 연천])의 영모당(永慕堂)으로부터 안향 초상을 봉안하여 오고, 다음 해(1913)에 도통사를 연산재 뒤에 세우고 채용신으로 하여금 화성(華城) 궐리사(闕里祠) 공자와 주자 초상을 모사해 봉안하게 하였다. 공자행교상도 궐리에서 가져와 봉안했으며, 안향 초상이 오래되고 낡아서 채용신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였다.¹⁸

教會)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6 (2015), p. 104.

¹⁷ 이두희·이충구 역, 앞의 책, pp. 50-51.

¹⁸ “壬子秋傲滄洲故事行菜禮追念先生精舍儀禮 更定揭眞崇奉之論 遂遣李相福安洛鎭奉先生舊幀于長湍永慕堂 權奉于硯山齋翌年癸丑秋建祠於齋後 乃使蔡龍臣摹奉華城闕里祠夫子及朱子眞 以來孔子行教眞像自闕里奉來 先生影

『석강실기』와 『도통사지』 기록을 같이 살펴보면, 1913년에 화성 권리사 공자, 주자 초상을 모사하는 작업을 도모하여 결국 1914년에 채용신이 모사하여 드디어 도통사에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이도목 등 도통사를 이끌었던 진주의 유럽 10인은 채용신이 도통사에 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시를 지어 선물하였다.¹⁹ 문정욱(文正郁)은 화상을 직접 보게 된 것을 감격스러워 하며 채용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별의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표현하였다.

耳聞何似面談眞	귀로 들음이 어찌 영정을 만나 이야기함만 같을까
後素心工老益神	미술의 마음과 솜씨 노련하여 더욱 신비롭구나
況是黃花重九節	하물며 국화꽃 피는 음력 9월 9일에
那留金馬遠歸人	어떻게 금마로 돌아가는 사람을 멈추게 할까? ²⁰

공자는 유학의 시조, 주자는 집대성, 안향은 우리나라 유학의 선구자로서 세 분을 함께 모시는 것은 유학의 도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지금까지 도통사에는 안향을 제외한 공자, 주자 초상이 전해온다. 2018년부터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기탁되어 보관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붓질과 음영법을 통해 사실성과 입체감을 살려 얼굴을 묘사하였고, 무릎을 꿇고 자리 위에 앉아 있는 성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도상은 <윤증 초상>에서 궁중화원 장경주(張敬周, 1710~?)와 이명기(李命基, 1756~1813 이후)가 처음으로 채택한 자세다. 강관식은 윤증 관련 기록을 통해 이 자세는 '선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일반적인 '궤좌(跪坐)'와 다른 '단공(端拱) 위좌(危坐)'라고 하였다.²¹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자주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20세기 들어 채용신이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를 채택하여 유학자 초상을 그렸고, <전우 초상>, <홍순학 초상> 등으로

本年久甚滄又使龍臣加彩是年秋九月中丁奉安聖像以朱子配安子從祀。”安秉銘, 「敘事」, 安明植 編, 『道統祠誌』, 「道統祠顛末記」(196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 이두희·이충구 역, 앞의 책, pp. 30-31.

20 이두희·이충구 역, 앞의 책, p. 32.

21 강관식은 도포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명제 상의 도상을 축사하지 않은 처사의 모습과 엄격한 유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댄 채 두 손을 공손히 잡고 있는 자세, 즉 '단공(端拱) 위좌(危坐)'라 하여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많이 취했던 자세를 그린 것이라 하였다. 선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았다. 강관식, 「明齋 尹拯(1629~1714) 遺像 移摹史의 造形的, 祭儀的, 政治的 解釋」, 『강좌미술사』 35 (2010), pp. 181-213.

계승되었다. 주자 초상을 그릴 때에도 같은 자세를 채택하였던 것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 이기 이전에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학자로서의 주자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생각된다. 주자 초상은 화면에 채용신의 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채용신 화풍을 보인다. 채용신은 최익현 등의 초상을 그리면서도 화면에 묵서를 남기지 않았다. 존송하는 인물의 초상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이 실례를 범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었던 것일까. 족자 뒷면에 제작시기와 채용신의 이름이 남아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다양한 필체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묵서는 문중에서 남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



Fig. 3. 채용신, <주자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Chucha, 1914, Color on Silk, 111.3×64cm, Chinju Tot'ongs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4. 채용신, <주자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Chucha, Color on Silk, 108×65cm,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3-1. 채용신, <주자 초상 부분>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Chucha, 1914, Color on Silk, 111.3×64cm, Chinju Tot'ongs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4-1. 채용신, <주자 초상 부분>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Chucha, Color on Silk, 108×65cm,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채용신이 그린 주자 초상 세 점을 같이 비교해 보면(Fig. 1, 3, 4), 일곱 개의 사마귀 등 주자의 특징적 면모를 포함하여 그렸을 뿐, 인물의 이목구비는 각각 다르다. 얼굴만 보면 각각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중국에서 전래된 주자 초상과 조선시대에 제작된 주자 초상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채용신이 여러 주자 초상을 모사하면서 그 결과물이 달라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의 주자상과는 달리 채용신의 주자상은 한국인의 얼굴하고 있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도 있다.²²

안면묘사 기법은 채용신의 전형적인 초상화의 특징을 반영한다(Fig. 3-1, 4-1). 선으로 윤곽을 잡고 코 양쪽으로 주름진 표현이 동일하고 이마와 콧날, 광대뼈는 밝게 두고 반복되는 붓질로 피부의 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무수한 선이 중첩되면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구분하는 음영법은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

22 조선미, 「채용신의 생애와 예술-초상화를 중심으로」, 『석지 채용신』(국립현대미술관, 2001), p. 43.

대 초상화보다 훨씬 사실적인 초상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눈동자에는 동공 주변으로 점을 찍고 눈동자 양 옆으로 흰색이나 하늘색 안료를 전채하여 눈동자가 잘 보이도록 표현한 것은 채용신 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진주 도통사 주자 초상에는 하늘색이, 성균관대 주자 초상에는 흰색이 사용되었다.

모두 우안7분면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그렸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도포 자락이 등글게 모양 잡혔다. 정읍 영양사 본(Fig. 1)은 몸과 무릎을 같이 왼쪽으로 틀어서 양쪽 무릎이 같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도통사 본과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본(Fig. 3, 4)은 정면상에 가깝게 무릎을 바닥에 꿇었고 상체만 살짝 왼쪽으로 향한 모습이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본은 제작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1920년대부터 채용신 초상에 등장하는 눈동자 빛 반사가 표현되지 않은 점, 화문석의 문양이 사선이 아닌 직선으로 표현된 점 등으로 볼 때, 191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면과 장황 부분을 구획하기 위해 선을 긋고 화면 바탕에 선염을 구사하여 어둡게 처리하였으며, 화면 위쪽 변아에 ‘회암주선생유상(晦庵朱先生遺象)’이라고 적고 왼쪽 변아에 ‘후학경주김정현(後學慶州金正玄) 봉안(奉安)’이라고 적었다. 김정현이라는 인물이 봉안을 위해 제작을 주도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화면 왼쪽 하단에 ‘석지(石芝)’, ‘정산군수채용신신장(定山郡守蔡龍臣信章)’이라는 도장 두 과가 날인되었으나, 제작시기나 화가 정보는 적혀 있지 않다.²³ 보통 성현 초상에는 주문자나 화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예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초상 제작 자체가 개인적인 봉안을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적 봉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16년에 채용신이 허업(許業, 1883~1922)을 방문하여 그려주었다는 주자 초상 기록에서 개인적 목적의 주자 초상 봉안이 확인된다. 허업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제자로 남원에서 의병활동에 참여했다가 고향(전남 담양 추정)으로 돌아와 은둔하였는데, 1916년 가을, 채용신이 추성(楸城)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청고(靑阜) 이승학(李承鶴, 1857~1928)에게 부탁하여 채용신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²⁴ 공자와 주자 두 초상을 그려 받고 “**지금 유상을 바라보며 절하고 덕용을 상상하고 몸으로 체득하기를 생각하니, 성인의 학도가 될 수**

23 채용신은 초상화를 그리고 도장만 찍어주고 제작시기나 화가명은 받은 사람이 쓰는 예가 많았다. 또한 화면 위에 남기기도 했지만 족자 뒤에 있기도 하다. 드물게는 인장만 찍혀 있는 경우도 있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주자 초상〉은 인장만 찍은 경우에 속한다.

24 이두희·이충구 역, 앞의 책, p. 52.

있어서 감모함이 더욱 절실했다”고 감탄했다. 이승학은 기정진(奇正鎭)의 제자로 1885년 명성왕후가 시해되었을 때 격문을 전국에 보내어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로, 1924년 채용신이 그의 초상을 그린 것이 전하고 있으며, 『석강실기』에도 7인시를 남긴 인물이다.²⁵ 이렇게 허업의 경우를 통해, 공자와 주자 초상은 공적인 목적의 서원, 사당뿐 아니라 개인적인 숭모 차원에서 제작하여 모시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상화를 바라보고 절하면서 성인을 감모함이 더욱 절실했다는 표현에서, 성인의 초상화가가 성인을 추송하고 존중, 존경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기탁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로서 기능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채용신이 진주까지 멀리 가서 주자 초상을 그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923년 전남 구례군에 거주하던 문화류씨 문중으로부터 초상화 주문을 받고 선금, 잔금 등 사례금을 받고 영수증 발행까지 했던 상업적 활동의 면모를 볼 때, 금전적 댓가가 있었기 때문에 수응한 것일까. 아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IV. 초상화를 통한 유학 존송과 채용신의 수응(酬應)

진주 도통사에서 이상복(李相福)이 편찬한 진주 도통사에 속한 유생들의 이름을 적은 『유안(儒案)』(1917년)에 등록된 인물은 총 2000명이 넘는데, 지역적 분포를 보면 단연 진주와 인근 경상남도 지역 인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서울, 경기, 황해, 전라 등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Fig. 5).²⁶ 특히 전라북도 인물들은 대부분 남원에 세거하던 안씨인 것을 감안하면, 도통사의 저변에 순흥안씨 문중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안에는 계원(契員)의 명단 외에 계원이 지켜야 할 사항, 서문, 발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채용신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 아래에 ‘전라(全羅) 익산(益山) 한정(閑井)’으로 기재되

25 허업에게 소개하였던 기록을 통해 이승학이 1916년 이전부터 채용신과 인연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두희·이충구 역, 앞의 책, pp. 44-45.

26 李相福, 『碩山道統祠儒案』(19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래 1909년 겨울에 『회현선생실기(晦軒先生實紀)』를 중간(重刊)하고 이듬해인 1910년 9월 15일 석채례를 행하고 수계(修契)한 후 만든 유안(儒案)이 『회현실기장판각유계안(晦軒實記藏板閣儒契案)』이다. 이후 세 분 聖賢의 편년과 연보를 만든 1915년 즈음에는 계원(契員)이 2천 명을 넘을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1917년 봄에 이르러 이전의 유안과 당시까지의 계원을 모두 합하여 『도통사유안(道統祠儒案)』을 출간하였다. 총 2천 명이 넘는 계원이 있었다. 강정화, 『晉州 道統祠의 출판활동과 그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43 (2016), p. 14.

안재호를 말함)는 부모를 섬기기에 효성으로 하여, 이미 정려를 내리고 벼슬을 주시는 은전이 있었습
니다. 자손으로서 감격하는 바가 있으나, 아직도 화상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선생께서 그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채공은 말하였다. “내가 비록 늙어 혼몽하지만 **충효의 화상을 그리는 것은 제가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²⁸

안재호는 관직을 하지 않고 평생 유학자로 살았던 인물로, 저서로는 『지산유고(芝山遺稿)』
가 있다. 그는 1873년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자신의 장서(藏書)를 기증하기도 하였
다. 생전에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로, 그가 세상을 뜬 지 20년 후인 1893년(고
종 30) 6월 30일 정읍 신태인에 그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각(旌閭閣)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초
상이 그려진 1912년 안재호는 이미 세상을 떠난지 한참된 후였다(Fig. 6). 사진을 보고 그렸을
가능성이 크며, 초상에는 ‘壬子小春上澣從二品嘉善大夫前定山郡守蔡龍臣摹寫’라고 하여
‘모사’라고 밝힌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상을 주문한 아들 안요목이 자신의
초상이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초상을 주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태산사는 1907년 최익현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그 후 김직술, 김기술을 추가 배향하였
다. 철거되었다가 시산사(詩山祠)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세워졌다. 1911년 채용신은 1905년
초상화를 그린 바 있었던 최익현을 첨배하기 위해 태산사를 찾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채용신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태산사를 후원했을 뿐 아니라, 충효의 덕목을 높이 존경하고 유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바탕에서 안재호 초상을 그려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진안 화양산에 황단(皇壇)을 설치하고 고종의 영명(永命)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던 이덕응
은 금관조복을 입은 초상화로 그려졌다(Fig. 7). 이덕응은 진안에 은거하며 강학 활동을 하였
고 채용신이 초상화를 그려감으로써 세상에 그의 제의 행위가 알려지게 되었다.²⁹ 관직을 역임
한 적이 없어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이덕응 초상이 세 점이나 그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자
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로서는 고가였던 사례비를 마련했던 상황이 있었다. 기록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문중의 구전을 통해 확인되는 바는, 이덕응의 수제자였던 송성기(宋聖
基) 역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자 하였으나 사례비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국

28 이두희·이충구 역, 앞의 책, p. 50. 번역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신 유승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9 李德應, 〈乞降敕命疏〉, “... 竟被畫師蔡龍臣寫去, 以見知於世矣”, 박철상, 「수당 이덕응의 생애와 교유」, 『(조선의 광복
과 국태민안의 염원) 화양산 황당』 (진안역사박물관, 2019), p. 209.

지사는 많았지만 초상화로 그려지려면 고가의 사례비가 확보되어야 했고, 1910년대에는 문중과 제자들이 돈을 모아 우국지사였던 스승님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따라서 초상화의 존재 자체가 인물의 명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증명해주고 그가 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자 초상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고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Fig. 6. 채용신, 〈안재호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An Chaeho, Color on Silk, 107.5×59.9cm, Jeonju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www.emuseum.go.kr)

Fig. 7. 채용신, 〈이덕응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I Töküng, Color on Silk, 133×60cm, Private Collection (Photograph by the author)

채용신이 1910년대 전반에 그린 인물 대부분이 의병활동이나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국지사의 초상을 집중적으로 그렸음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채용신에게 초상화를 그려받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례비였다. 아무리 우국지사라 하더라도 사례비가 마련되지 못하면 초상화를 그려 받지 못했던 것이다. 종합

적으로 보면, 유학의 본질을 추구하며 광복을 기원하였던 시기에 채용신은 덕망이 높은 이들의 초상화 제작 주문에 응하여 고가의 초상화를 납품하였다. 여러 기록을 통해 그가 단순히 그림을 주문받아 제작, 납품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사례비를 마련하여 초상화를 의뢰하는 제자들 혹은 문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참하며 작업에 임했음을 안재호 초상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자 초상도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 채용신은 1914년, 1916년 수요가 있었던 곳이라면 전북 정읍, 담양뿐 아니라 경남 진주까 직접 찾아가서, 공자, 주자 초상을 그려 수요에 응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나라를 걱정하는 유림들이 유교 사상으로 위기를 이겨나가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자, 주자를 모시는 사당이 건립되고 초상이 봉안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 하에서, 채용신은 유림들의 유학 중시 흐름에 공감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들이 주문을 받아오고 정읍 공방에서 초상화를 그렸던 1920년대와 달리, 1910년대에는 채용신이 직접 수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수용했던 것도 알 수 있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공자, 주자 초상을 그리러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채용신 역시 항일 의식과 유학에 대한 존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주자 초상은 유학자 초상과 층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시각자료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병활동을 했던 최익현을 모신 태산사에 의연금을 내기도 했던 채용신은 초상화를 그려주는 방식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후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V. 맺음말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많은 유림들은 유학의 본질로 돌아가 품성을 기르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는 기본을 다지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읍에 영주정사를 세운 박만환은 추가로 영양사를 짓고 공자, 주자 등 12성현들의 초상을 채용신에게 주문하였다. 채용신은 정읍뿐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요청에도 직접 방문하여 주자 초상을 그려주기도 하였다.

국권 상실 상황에서 전국의 유림들이 국권 회복을 위해 유학의 본질을 더욱 성찰하고 유학 교육에 매진했던 현상에 대해서는 현실도피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유학자이자 항일 의병장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당대의 선비가 국가의 파국에 맞서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거론한 것에서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된다. ‘처변삼사(處變三事)’가 그것인데, 첫째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물리치는 것[거의소청(學義掃淸)], 둘째 은둔·망명해서 유교의 도를 지키는 것[거지수구(去之守舊)], 셋째 목숨을 끊어 지조를 지키는 것[자정수지(自靖滄志)]이다.³⁰ 기우만(奇宇萬), 최익현(崔益鉉)처럼 의병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우(田愚)처럼 유학으로 제자 양성에 매진하던가, 황현(黃玟)처럼 결국 자결을 택했거나 전북 유림들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의 근본은 같았을 것이다.

채용신은 이들 세 그룹에 속한 모두의 초상화를 그렸다. 실제로 초상화는 이들을 따르는 문중과 제자들의 주문에 의해 제작 의뢰된 것이었다. 채용신은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고 생각된다. 의병활동을 했던 최익현을 모신 사당에 의연금을 내거나, 멀리까지 주자 초상 주문에 응했던 것은 지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이산에 은거하며 저술과 강학에 매진했던 주자의 삶에서 전북의 유림들은 스스로 미래를 도모하고 방향성을 찾았다. 이러한 모색은 큰 틀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고 채용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유림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초상화를 주문하고, 채용신은 초상화를 통해 우국지사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 자체가 인물의 명성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주자 초상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채용신이라는 당대 최고의 화가의 손으로 탄생한 주자 초상은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어(keywords)_채용신(蔡龍臣, Ch'ae Yongsin), 주자(朱子, Chucha), 초상(肖像, Portrait), 영양사(瀛陽祠, Yōngyangsa), 도통사(道統祠, Tot'ongsa)

■ 투고일 2024년 11월 12일 |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4년 11월 29일 ■

30 『昭義新編』 권2 雜錄; 이황작,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유인석의 『우주문답』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1 (2011), p. 126 참고.

참고문헌

1. 사료

安明植 編, 「道統祠顛末記」, 『道統祠誌』, 1964.

李相福, 『碩山道統祠儒案』, 1917.

2. 한국어 문헌

강관식, 「明齋 尹拯(1629~1714) 遺像 移摹史의 造形的, 祭儀的, 政治的 解釋」, 『강좌미술사』 35, 2010, pp. 181-213.

강정화, 「晉州 道統祠의 출판활동과 그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43, 2016, pp. 5-29.

권수용, 「〈부록〉 영주정사 현판 번역」,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김재영, 「근대이행기 호남인재의 산실, 영주정사와 영학숙」,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김혜미, 「조선시대 야복(野服) 초상화의 성립과 전승-송시열의 심의(深衣) 초상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김호석, 「수당 이덕응 초상화에 대한 연구」, 『(화양산 황단 100주년 기념 특별전) 조선의 광복과 국태민안의 염원, 화양산 황단』, 진안역사박물관, 2019, pp. 138-149.

문미진, 「韓國의 朱熹 肖像 研究」, 『中國人文科學』 63, 2016, pp. 205-234.

민길홍, 「송정과 칠광의 소환, 1910년 채용신의 <칠광도七狂圖>: 이미지를 통해 전하는 도강 김씨 문중의 메시지」, 『미술사학연구』 322, 2024, pp. 33-57.

박정애, 「조선시대 朱子 崇慕熱과 그 이미지의 시각화 양상」, 『대동문화연구』 93, 2016, pp. 199-241.

박학래, 「근대 이행기 간재학파의 형성과 전개」,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흐름, 2016.

박철상, 「수당 이덕응의 생애와 교유」, 『(조선의 광복과 국태민안의 염원) 화양산 황당』, 진안역사박물관, 2019.

서홍석, 「충현서원 소장 주자초상 고찰-초상의 제작연대 및 이동상황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2014, 12, pp. 249-272.

『석지 채용신 초상화』, 국립전주박물관, 2020.

신두환, 「16世紀 朝鮮의 『朱子大全』 刊行과 그 學問的 動向 研究」, 『南冥學研究』 52, 2016, pp. 43-78.

양진희, 「석지 채용신 회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9.

유미나, 「20세기 초의 정읍과 채용신의 회화 활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8, 2023, pp. 345-379.

이남복, 「고려 후기 주자학의 수용 전개와 안향의 위치」, 『역사와 경계』 18, 1990, pp. 43-69.

이두희·이충구 역, 『석지 채용신 실기』, 국학자료원, 2004.

이정희, 「일제시기 경남지역의 孔敎運動 연구-도통사 孔敎支會와 배산서당 朝鮮孔敎會를 중심으로-」, 『남

명학연구』 46, 2015, pp. 95-136.

이황직,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유인석의 『우주문답』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1, 2011, pp. 107-151.

정경숙, 「석지 채용신의 1915년 작 《무이구곡도》 10폭 병풍에 관한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 5, 2016, pp. 183-210.

정원기, 「한말~일제강점기 영주정사 출신 인물들의 활동」,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한국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 및 역할』,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21.

조정욱, 「경상대도서관 소장 蔡龍臣의 〈至聖先師孔子像〉 연구」, 『남명학연구』 66, 2020, pp. 73-116.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An, Myöngsik. "Tot'ongsa chönmalgi." *Tot'ongsaji*, 1964.

I, Sangpok. *Söksandot'ongsayuan*, 1917.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Chöngyuk (Cho, Cheung-yook). "Kyöngsangdae tosögwän sojang Ch'ae Yongsin üi Chisöngsönsagongjasang yön'gu[Study on the Portrait of Ultimate Sage and Foremost Teacher Confucius painted by Chae, Yong-Shin : Collection of KyeongSang University Library]", *Nammyöngghak yön'gu* 66 (June 2020): 73-116.

Chöng, Kyöngsuk (Chung, Kyungsook). "Sökchi Ch'ae Yongsin üi 1915 nyön *Muigugokto* 10 p'ok pyöngp'ung e kwanhan yön'gu[An Article on the Chae Yongshins 10 piece-folding Screen Painting of Nine-bend in Mt. Wuyi in 1915]", *Misulsa wa munhwayusan* 5 (2016): 183-210.

Chöng, Wönki. "Hanmal-Ilche kangjöngi Yöngjujöngsa ch'ulsin inmultül üi hwaltong." Paper presented at Chöngüp yöksa munhwa yön'guso che 6 ch'a haksul taehoe: Han'guk kündeasa esö Yöngjujöngsa wa Yönghaksuk üi wisang mit yök'al, Chöngüp yöksa munhwa yön'guso, August 2021.

I, Chönghüi (Lee, Jeonghee). "Ilche sigi Kyöngnam chjiyök üi Konggyoundong yön'gu-Tot'ongsa Konggyojihoe wa Paesansödang Chosön konggyohoe rül chungsim üro[A Study on The Movement of Confucius religio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on Kyöngnam Region]", *Nammyöngghak yön'gu* 46 (2015): 95-136.

I, Hwangchik (Yi, Hwang-Jik). "Ch'ogi kündae Yugyo kyeyöl üi minjokchuüi sösa e taehan yön'gu: Yu Insök üi *Ujumundap* üi chungsim üro[A Study on the Narratives of the Nationalism of Confucian Scholars in Early Modern Korea]", *Munhwa wa sahoe* 11 (2011): 107-151.

I, Nampok. "Koryö hugi Chujahak üi suyong chön'gae wa Anhyang üi wich'i", *Yöksa wa kyönggye* 18 (1990): 43-69.

Kang, Chöngghwa (Kang, Jeong Hwa). "Chinju Tot'ongsa üi ch'ulp'an hwaltong kwa kü üüüi[A Study on the Publication Activities of Dotongsa of Jinju and Their Meanings]", *Tongyang hanmunhak yön'gu* 43 (2016): 5-29.

Kang, Kwansik (Kang, Kwan-Shik). "Myöngjae Yunjüng yusang Imosa üi chohyöngjöök, cheüijök, chöngch'ijök haesök[Formative, Ritualistic and Political Interpretation for the Copying History of Yunjeung(尹拯, 1629~1714), the Myeongjae(明齋)'s Posthumous Portrait]", *Kangjwa misulsa* 35 (2010): 181-213.

- Kim, Chaeyŏng. "Kūndae ihaengi Honaminjae ūi sansil, Yŏngjujŏngsa wa Yŏnghaksuk." Paper presented at Chŏngŭp yŏksa munhwa yŏn'guso che 6 ch'a haksul taehoe: Han'guk kūndaesa esŏ Yŏngjujŏngsa wa Yŏnghaksuk ūi wisang mit yŏk'al, Chŏngŭp yŏksa munhwa yŏn'guso, August 2021.
- Kim, Hosŏk. "Sudang Yi Tŏkŭng ch'osanghwa e taehan yŏn'gu." in (*Hwayangsan hwangdan 100 chunyŏn kinyŏm t'ŭkpyŏlchŏn*) *Chosŏn ūi kwangbok kwa kukt'aeminan ūi yŏmwŏn, hwayangsan hwangdan*, 138-149. Chinan: Chinan yŏksa pangmulgwan, 2019.
- Kim, Hyemi. "Chosŏn sidae yabok ch'osanghwa ūi sŏngnip kwa chŏnsŭng-Song Siyŏl ūi Simŭi ch'osanghwa rŭl chungsim ūro[Establishment and Transmission of Yabok Portrait in the Chosŏn Dynasty : Focusing on Song Siyeol's Simeui Portrait]." Master's thesis, Hongik taehakkyo, 2023.
- Kwŏn, Suyong. "Yŏngjujŏngsa hyŏnp'an pŏnyŏk." Paper presented at Chŏngŭp yŏksa munhwa yŏn'guso che 6 ch'a haksul taehoe: Han'guk kūndaesa esŏ Yŏngjujŏngsa wa Yŏnghaksuk ūi wisang mit yŏk'al, Chŏngŭp yŏksa munhwa yŏn'guso, August 2021.
- Min, Kilhong (Min, Gilhong). "Songjŏng kwa Ch'ilgwang ūi sohwan, 1910 nyŏn Ch'ae Yongsin ūi *Ch'ilgwangdo*: imiji rŭl t'onghae chŏnhanŭn Togang Kim ssi munjung ūi meshiji[Summoning Songjŏng and Ch'ilgwang (Seven Madmen): The Message of the Togang Kim Family in Ch'ae Yongsin's 1910 Ch'ilgwangdo]", *Misulsahak yŏn'gu* 322 (2024): 33-57.
- Mun, Michin (Moon, Mijin). "Han'guk ūi Zhu Xi ch'osang yŏn'gu[Study on the Portrait of Zhu Xi in Korea]", *Chungguk inmun kwahak* 63 (2016): 205-234.
- Pak, Ch'ŏlssang (Park, Chulsang). "Sudang I Tŏgŭng ūi saengae wa kyoyu." in *Chosŏn ūi kwangbok kwa kukt'ae minan ūi yŏmwŏn Hwayangsan hwangdan*. Chinan: Chinan yŏksa pangmulgwan, 2019.
- Pak, Chŏngae (Park, Jeong-ae). "Chosŏn sidae Chuja sungmoyŏl kwa kŭ imiji ūi sigak'wa yangsang[Reverence of Zhu Xi and Visualization of His Image During the Chosŏn Period]", *Taedongmunhwa yŏn'gu* 93 (2016): 199-241.
- Pak, Hakrae (Park, Hakrae). "Kūndae ihaengi Kanjaehakp'a ūi hyŏngsŏng kwa chŏn'gae." in *Kŭnhyŏndae chiyŏk kongdongt'e pyŏnhwa wa yugyo ideollogi*. Sŏul: Hŭrŭm, 2016.
- Sin, Tuhwan (Shin, Doohwan). "16 segi Chosŏn ūi *Chujadaejŏn* kanhaeng kwa kŭ hangmunjŏk tonghyang yŏn'gu[A Study on the *Chujadaejeon*(朱子大全)'s Publication and a Tendency of Scholarship the 16th Century in Chosŏn(朝鮮)]", *Nammyŏnghak yŏn'gu* 52 (2016): 43-78.
- Sŏ, Hongsŏk. "Ch'unghyŏnsŏwŏn soch'ang Chuja ch'osang koch'al-ch'osang ūi chejakyŏndae mit idongsanghwang ūl chungsim ūro", *Ch'ungch'ŏnghak kwa ch'ungch'ŏng munhwa* 19 (December 2014): 249-272.
- Sŏkchi Ch'ae Yongsin ch'osanghwa*. Chŏnju: Kungnip Chŏnju pangmulgwan, 2020.
- Sŏkchi Ch'ae Yongsin silgi*. Translated by Tuhŭi Yi and Ch'ungku Yi. Sŏul: Kuk'akcharyowŏn, 2004.
- Yang, Chinhŭi (Yang, Jinhee). "Sŏkchi Ch'ae Yongsin hoehwa yŏn'gu." Master's thesis, Han'gukhak

chungang yŏn'guwŏn, 2019.

Yu, Mina. "20 segi ch'o ūi chŏngŭp kwa Ch'ae Yongsin ūi hoehwa hwaltong[Chŏngŭp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Ch'ae Yongsin's Painting Activities]", *Yŏllinjŏngsin inmunhak yŏn'gu* 48 (2023): 345-379.

국문초록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많은 유림들은 유학의 본질로 돌아가 품성을 기르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는 기본을 다지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읍에 영주정사(瀛洲精舍)를 세운 박만환(朴晩煥)은 추가로 영양사(瀛陽祠)를 짓고 공자, 주자 등 열두 성현들의 초상을 채용신에게 주문하였다. 채용신은 정읍뿐 아니라 그 이외 지역의 요청에도 직접 방문하여 주자 초상을 그려주기도 하였다. 경상남도 진주의 유림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외준 채용신에게 감사하며 전별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채용신이 그린 주자 초상은 현재 3점 전하고 있다. 문헌기록은 있으나 화면에 관서가 남아있지 않은 정읍 영양사 구장본과 진주 도통사(道統祠) 소장본에 대해서는 화풍 분석을 통해 채용신 초상임을 확인하였다.

기우만(奇宇萬), 최익현(崔益鉉)처럼 의병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우(田愚)처럼 유학으로 제자 양성에 매진하던가, 황현(黃玑)처럼 결국 자결을 택했거나 전북 유림들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의 근본은 같았다. 채용신은 이들 세 그룹에 속한 모두의 초상화를 그렸다. 실제로 초상화는 이들을 따르는 문종과 제자들의 주문에 의해 의뢰된 것이나, 진주 도통사 『유안(儒案)』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점, 『석강실기』 기록에 초상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채용신은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이산에 은거하며 저술과 강학에 매진했던 주자의 삶에서 전북의 유림들은 스스로 미래를 도모하고 방향성을 찾았고, 이러한 모색은 채용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Abstract

Ch'ae Yongsin's Portrait of Zhu Xi (朱子): A Collaboration Between Confucian Scholars and an Artist to Honor Neo-Confucianism

Min Gilhong*

Following the loss of Korea's national sovereignty in 1910, many Confucian scholars sought to return to the essence of Confucianism, emphasizing self-cultivat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s a foundation for national restoration. In this context, Pak Manhwan (朴晚煥), who established Yōngju Chōngsa (瀛洲精舍) in Chōnggūp, also constructed Yōngyangsa (瀛陽祠) and commissioned Ch'ae Yongsin to paint portraits of twelve Confucian sages, including Zhu Xi (朱子). Ch'ae Yongsin not only created the requested portraits in Chōnggūp but also traveled to other regions upon invitation to produce portraits of Zhu Xi. For instance, Confucian scholars in Chinju, Kyōngsangnamdo, expressed their gratitude by composing farewell poems for Ch'ae after his visit. Among the portraits of Zhu Xi painted by Ch'ae, three are extant today. Through stylistic analysis, this study confirms Ch'ae's authorship of the portraits housed at Yōngyangsa in Chōnggūp documented in records but lacking inscriptions and at Tot'ongsa (道統祠) in Chinju.

The Confucian scholars of Chōnbuk, including figures like Ki Uman (奇宇萬), Ch'oe Ikhyōn (崔益鉉), Chōn U (田愚), and Hwang Hyōn (黃玪), shared a common commitment to national salvation. While their approaches varied—ranging from participating in anti-Japanese resistance to teaching Confucian principles or choosing martyrdom—their dedication to the nation was unified. Ch'ae Yongsin painted portraits of individuals across these groups. These works were commissioned by their descendants and disciples, but records in the Yuan (儒案) of Chinju's Tot'ongsa and *Sōkkang silgi* (石岡實記) suggest that Ch'ae indirectly or directly supported their endeavors. The life of Zhu Xi, who secluded himself at Wuyi Mountain to focus on writing and teaching, provided inspiration and guidance to Chōnbuk's Confucian scholars as they envisioned their future paths. Ch'ae Yongsin's involvement significantly invigorated these efforts, serving as a pivotal figure in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activities of the time.

* Curatorial Research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